

취재 | 이호철 기자
사진 | 볼링인매거진

포항서 20일간 국가대표 강화훈련 실시

대한장애인볼링협회(회장 정상익)가 지난 5월 10일부터 20일 간 포항 빅볼오천세기볼링장에서 국가대표 강화훈련을 실시했다. 2021년도 국가대표는 지난 4월 선발전을 치러 21명이 태극마크를 달았고, 이번 강화훈련에는 7개 종목 18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전력을 가다듬었다. 한국장애인볼링대표팀은 최근 몇 년 동안 장애인아시아게임 및 데플림픽 등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세계 최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 국제무대에서의 성적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올해 대표팀 코칭 스태프에는 김진홍 감독을 비롯해 이창용, 강정아, 김옥희, 박창석 코치가 선임됐다.



[1] 강화훈련에 참가한 장애인국가대표팀

[2] 포항 빅볼오천세기볼링장에서 강화훈련이 진행됐다

[3] 코칭스태프 5명이 함께 했다

세계 최강 한국장애인대표팀

대한장애인볼링협회가 지난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포항 빅볼오천세기볼링장에서 국가대표 강화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4월 선발된 21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숙 강화훈련을 통해 전력을 점검한 것이다.

이번 국가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2개월 늦게 치러진 가운데, 국제대회가 예정된 유형만 선발됐다. TPB1~4,

TPB8~10의 총 7유형에서 각각 3명씩 총 21명이 선발됐으며, 코칭 스태프에는 김진홍 감독을 비롯해 이창용, 강정아, 김옥희, 박창석 코치가 선임됐다.

한국장애인볼링은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굼직한 성적을 올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록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제대회가 열리지 못했으며, 올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몇 년간 성적을 보면 한국이 최강임은 틀림없다.

특히 장애인아시아게임서는 2014년과 18년 모두 우승을 차지했으며, 전 세계 청각 장애인선수들이 기량을 펼치는 데플림서도 2017년 정상에 올랐다. 이처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던 원동력에는 선수들의 노력이 가장 컸지만, 이에 못지않게 협회와 정부의 지원도 한 몫 했다.

대표 팀을 이끌고 있는 김진홍 감독은 “2010년대에 접어들어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졌다. 게다가 협회를 포함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해주는 분들이 많다. 물론 아직까지 장애인스포츠를 편견을 갖고 보는 시선도 분명 존재하지만, 선수들과 지도자 및 관계자들은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결과 국제무대에서 수년간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물론 다른 국가들의 기량 발전이 눈에 띄어 앞으로 세계 최고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올림픽 진입 노리는 장애인볼링

볼링은 장애인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특히 경쟁력이 높은 것

으로 알려졌다. 다른 스포츠의 경우 일부 장애 유형만 경기를 치를 수 있지만 볼링은 모든 장애 유형(12개 유형)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격렬한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스포츠에서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 최근 수년간 다른 국가에서도 집중적으로 볼링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청각 스포츠 제전인 데플림픽에서는 꾸준히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도 승선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장애인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으나, 볼링과 장애인스포츠의 상성이 좋은 만큼 오는 2028년 LA 패럴림픽을 목표로 한국장애인볼링협회를 비롯한 국제볼링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장애인볼링은 시각장애 TPB1~3 유형과 지적장애 TPB4유형, 지체장애 TPB5~7 유형, 하지장애(휠체어) TPB9 유형, 상지장애 TPB10~11 유형, 그리고 청각장애(농아인) DB 유형으로 구분돼 있다. 🎳

2021 장애인볼링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

김진홍 감독



생년월일 : 1963년 8월 8일
주요경력
2010년 광저우 장애인아시아 게임 대표팀 감독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 게임 대표팀 감독
2019년 세계농아인 볼링선수권 대표팀 감독

각오 및 목표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사고방식으로 항상 노력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이창용 코치



생년월일 : 1970년 8월 6일
주요경력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게임 코치
2015년 아시아태평양 농아선수권 대회 코치
2017년 삼순 데플림픽 코치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게임 코치

각오 및 목표

“볼링이 패럴림픽 정식 종목에 입성하기 위해 장애인볼링의 우수성을 알리겠다!”

강정아 코치



생년월일 : 1969년 10월 3일
주요경력
2018~19년 장애인국가대표 트레이너
2020년 장애인국가대표 코치

각오 및 목표

“장애인선수들의 기량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김옥희 코치



생년월일 : 1971년 8월 18일
주요경력
1997~98년 국가대표 선수
1995~98년 실업볼링선수 활동
2017년 삼순 데플림픽 코치
2018년 문체부장관 표창

각오 및 목표

“술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선수들의 손과 발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

박창석 코치



생년월일 : 1972년 11월 1일
주요경력
2014, 17년 장애인국가대표 트레이너
2016년 문체부장관 표창
2018, 20년 장애인국가대표 코치

각오 및 목표

“장애인 선수들과의 신뢰와 소통을 통해 한국 장애인 볼링을 세계 1위로 만들겠다!”

